

역사·문화 기반... '광주 브랜드 영화' 만든다

NEWS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시, 독립영화 8편 선정... 제작비 최대 1억 지원 광주극장·예술극장 활성화... 시네마테크 조성

광주시가 지역의 역사·문화·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해 '광주 브랜드 영화'를 추진한다.

시는 또 개관 90주년을 맞은 광주극장 활성화를 위해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감독과의 대화, 특별상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제작부터 유통, 활용까지 연계한 영상·영화 사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독립영화 제작 지원, 로케이션 촬영 지원, 시민 영상 공모전 개최,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운영, 광주독립영화관 및 광주극장 활성화, 시네마테크 조성 등을 지원한다.

먼저 광주시는 올해 독립영화 장편 3편, 단편 5편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영상 제작능력을 높이고 '광주 브랜드 영화'로 지역 영화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광주시가 지원한 광주독립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2021년 개봉)가 202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봉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2023년 개봉)가 2023년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독립영화 단편 '이력'이 2023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 선정됐으며, '물레'가 가치봄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선정됐다.

광주시는 제작 지원 작품의 유통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전시회인 '광주에이스페어'에 예고관 상영, 마케팅 지원, 무료 특별 상영회 개최 등 지원에 나선다.

또 광주여성영화제·광주독립영화제의 '메이드인 광주'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품의 상영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의 광주 현지촬영(로케이션) 유치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의 40%(최대 1억 원)까지 특선(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 영화화를 이끌어가는 광주극

장과 광주독립영화관의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지난 1935년 개관한 광주극장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영화관이자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광주극장 개관 90주년 행사를 감독과의 대화, 특별상영회 개최 등 풍성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독립영화관은 독립영화 상영 외에도 영화 제작자 양성을 위한 광주영화학교를 운영한다. 수강생들은 직접 단편영화를 제작·촬영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지역 영화인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시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미래 영화인을 발굴·육

성하기 위한 광주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영상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광주 영상융합문화관에 시네마테크를 조성한다. 다양한 고전·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제작지원 작품, 여성·독립영화제 출품작 등을 수집·보관, 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네마테크 개관과 함께 포럼, 특별 상영회를 개최해 영상문화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올해 광주시 영상·영화 지원사업은 제작부터 유통, 활용까지 연계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광주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영화들이 국내외에서 더욱 널리 상영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관광 수용실태 정비 바가지 요금 근절·안전 강화

전남도가 따뜻한 봄을 맞아 3~5월 곳곳에서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방문객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도록 관광 수용태세를 철저히 정비하고 있다.

봄철 전남에선 △광양 마화축제(7~16일) △구례 산수유꽃축제(15~23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29~4월 1일) △영암 왕인문화축제(29~4월 6일) 등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4~5월에는 함평 나비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곡성 장미축제 등 전남의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풍성하게 열린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가 관광객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전남도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 가격이 책정되도록 축제 주관 부처와 협력해 '바가지요금 점검반'을 운영한다.

축제장 종합상황실에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축제장 외부 불법 노점상의 부당 요금 부과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합리적 가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봄철 축제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철저한 점검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이현규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에 참여하는 제17기 드림청년 공무교육에 참석,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 강연 및 질의응답을 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청년의 내☆일 응원”...광주시, 일경험드림 시작

451명 대상... 최대 5개월간 일경험·교육

광주시 청년 일자리 인기 정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이 상반기 일경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광주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에 참여하는 '17기 드림청년' 451명을 대상으로 4~6월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시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1일차 교육에는 일경험 맞춤형 자기개발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가 일경험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일경험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사무, 마케팅, 기획·운영,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직무에 대한 로드맵 교육을 통해 일경험 전 실질적으로 필요

있어 행복하고 기회를 쥐어 감사하다' 등 요즘 자신의 행복할 순간을 공유하며 꿈과 고민을 이야기했다.

강 시장은 "직장은 구하기 어렵고,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다들 걱정이 많죠"라며 청년들의 고민에 공감했다.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청년들이 택한 드림사업장, 관심사, 진로고민 등을 나눴다.

3일차인 6일에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노무상식을 비롯해 일상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 노무 교육을 진행하고, 궁금한 점을 직접 노무사에게 즉문즉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일경험 마인드셋' 교육을 통해 목표지향적 태도와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함양하며 공동 교육을 마무리한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요한 직무 기초 역량을 다졌다.

2일차에는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합리적 소비와 개인 재무관리, 직장 내 예절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후 일경험을 하게 될 드림터(사업장)에서 원활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정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법 등 다양한 팁을 전수한다.

강기정 시장은 교육 이틀째인 5일 오후 드림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현장을 찾아 청년들과 '무·몰·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소통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은 '광주 맛집 다닐 때!', '드림청년을 일할 수

광주시민대상 후보 공모...추천 내달 3일까지

광주시는 '제38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시민대상은 광주시의 발전과 명예에 선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87년부터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분야 각 1명씩 선정, 지금까지 총 169명(국)이 시민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 각 1명씩을 선정하던 기존방식에서 가장 공적이 뚜렷한 1명을 선정기로 하고, 후보자의 공적 검증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조사도 추가했다.

접수는 7일부터 4월3일까지이며, 광주시 자치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csa072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 빅데이터 공간정보 분석시스템 서비스 다양화

도내 유동·유입 인구·상권 입지 등 20개 서비스 개시

전남도는 최신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공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거점별 유동 인구 분석 등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5일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관련 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향후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으로 통신편이더와 카드 데이터 등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내 유동·유입 인구 분석, 30개 도내 축제

분석, 특정 지점 상권 입지 및 매출 분석 등 20종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기존에는 분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정 지점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했으나, 이번 고도화 사업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지점 분석이 가능하고 통계 자료에 대한 시각화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전남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과 지역 대표 축제를 분석한 결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은 여수시로 나타났다. 타 시·도 포함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축제는 곡성 세계장미축제로,

71만 명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유동 인구와 유입 인구 분석은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 흐름을 분석해 상권 활성화, 교통, 관광 정책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권 입지 분석은 선택 지점 기준 인구와 업종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입지 전략 수립 등에도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정보 분석시스템은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도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참여마당(map.jeonnam.go.kr)을 개편해 도민과 밀접한 생활정보와 입지 분석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NEW WORLD PARK GOLF

과학에 예술을 더하라

뉴월드파크골프

각 지역 대리점 및 영업사업 모집중!

- ✓ 뉴월드만의 독자적인 헤드 제조 기술 (단 한 개의 너사도 없는 일체형 몰드 성형 기술 특허증 보유)
- ✓ 고티싱 키본 샤프트의 페이스로 월등한 티격감

*전시판매장 ☎062)515-9600 (광주역광장→무등산쪽150m)